

#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비교 연구

옥 경 희(광주대학교 부교수) · 정 계 숙(부산대학교 교수) · 천 희 영(고신대학교 교수) ·  
황 혜 정(경기대학교부교수) · 최 성 학(연변대학교 부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연변조선족에서는 부모들이 한국으로 경제적 활동을 위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자로서의 스트레스와 효능감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모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74명(한국:43명, 연변:31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측정하였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와 가족의 특성이 문화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양육자의 성별, 교육수준, 양육이유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발달과 적응문제, 양육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역할부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포함한 4개 하위영역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발달과 적응문제와 사회적 낙인에서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역할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하였을때,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그리고 훈육능력 등 총 5개 영역에서 한국 조부모들이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양육자로서의 능력이 더 낮다고 평가하였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인 아동의 발달과 적응문제, 양육자의 과중한 역할부담,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낙인의 하위영역 모두가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조부모-손자녀가정은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정보다 주 양육자가 조모이며 돌보는 손자녀도 아들의 자녀임이 밝혀져 성역할 규범과 가부장적 규범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조부모들이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역할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양육자로서의 능력은 더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조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을 때, 양육효능감이 낮았으나,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조부모들이 손자녀양육을 더 힘들어하고 있으며, 양육부담이 양육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